

## 과학과 예술이 서려있는 석굴암

석굴암은 국보 제 24호로 1995년 유네스코에 의해서 세계 문화 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우리 문화 유산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린 석굴암은 경주에 있으며 불국사 동북쪽 토함산 중턱에서 동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위굴에 절을 만든 것인데 이와 같이 바위굴에 부처님을 모시는 절 형태는 인도에서 시작하여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인도나 중국에는 큰 바위 절벽이나 바위산이 많아 이렇게 바위 속에 만든 크고 작은 절이 인도와 중국에는 1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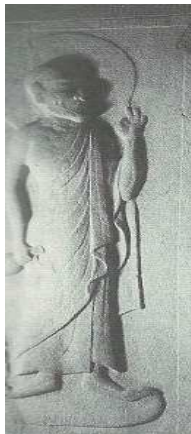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큰 바위절벽이나 바위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조상들은 사람의 힘으로 바위굴을 만들어 그 속에 부처님과 여러 불상들을 조각했습니다. 인도나 중국에서 배워 온 것을 우리의 자연 조건에 맞게 독창적인 형식으로 만들어 낸 것이라 할 수 있습

니다. 석굴암이 대표적인 바위 속 절입니다.

석굴암은 신라 제 35대 경덕왕 10년(751년)에 만들기 시작해서 23년 뒤인 774년에 완성했습니다. 23년이나 걸린 것을 보면 바위 속에 절을 만드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많은 노력이 들어갔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어느덧 잊혀지고 조선시대에는 불교를 멸시하여 자연히 사람들의 발길도 멀어졌습니다. 또 굴로 되어 있던 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흙에 덮여 아예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부터 95년 전에 한 우편배달부가 발견하여 다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석굴암의 바위 벽에는 여러 모양의 조각들이 새겨져 있는데 이를 통해 우리 조상의 예술성에 대해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교와 관련된 형상들 중 특히 정면으로, 입구를 보고 있는 석가여래 부처님상은 신비스러운 미소를 머금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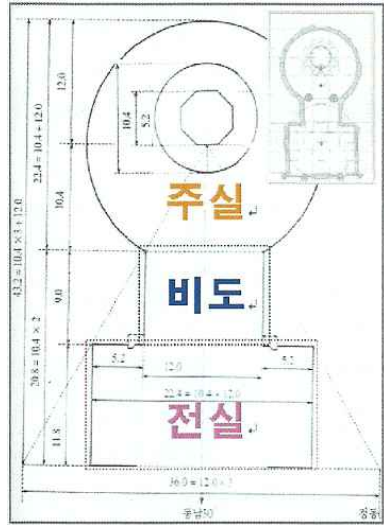


십대 제자



십일면 관음보살

석굴암의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본존불이 계시는 주실과, 통로인 비도, 참배자가 참배를 드리는 전실로 나뉩니다. 그런데 이들의 형태를 보면 주실은 원형이며 전실은 사각형으로 이것은 당시 신라인들의 사상인 ‘천원지방’ 즉, ‘하늘은 둥글고 땅



은 네모다’라는 사상에 의해 형성된 것입니다. 신라인들의 지구에 대한 생각은 옛날 다른 나라의 사람들의 생각과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석굴암 내부의 길이, 넓이, 부피를 무엇으로 어떻게 측정하였을까요?

석굴암의 석재들 하나 하나는 매우 무겁습니다. 본존불은 10톤 이상, 본존불 머리위에 얹혀진 연화개석(연꽃무늬가 새겨진 뚜껑돌)의 경우 20톤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동기나 내연기관도 없던 시대에 저렇게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릴 수 있었을까요?



썰기돌

석굴암 내부에서 천정을 찍은

판석



사진을 살펴보면 돌들 중에 중간 중간 튀어나온 돌이 있습니다. 맛있는 돌은 판석(板石)이라 부

르고 돌출한 부분은 썰기돌이라고 부릅니다. 석굴암 궁륭(원형) 판석과 썰기돌은 왜 다른 형태일까요? 모두 판석과 같이 맛있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기 때문일까요?

석굴암은 천년 이상 에어컨 없이 습기와 이끼를 이겨내고 잘 보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이 문화재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석굴암에 대한 자세한 연구 없이 시멘트를 이중 외벽으로 둘러쌓아 공기나 물의 흐름을 차단하여 습기를 막아 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습기가 차서 에어컨으로 습기를 제거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신라인들은 어떤 방식으로 습기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안내판을 지나서 올라가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왼쪽으로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리공사 도중 교체된 돌들이 놓여 있습니다.

 모양의 돌들은 석굴암 어느 부분에 쓰이던 돌이었을까요? 교체된 각 부분의 모양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모양이 어떤 곳에 쓰였는지 찾아봅시다. 여러분이 고고학자라고 생각하고  모양의 돌들을 토대로 석굴암을 재건축해 보세요.